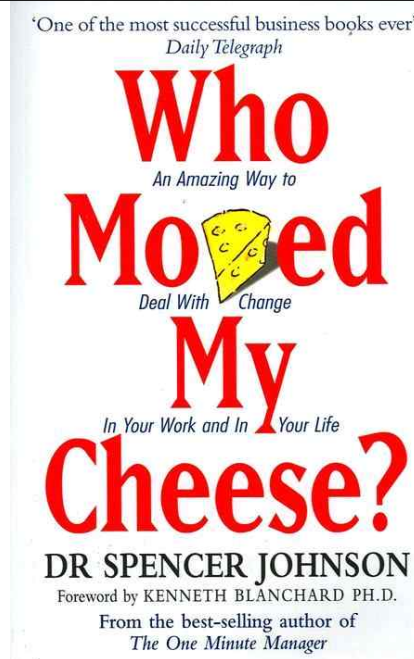


# Who Moved My Cheese?

## An Amazing Way to Deal with Change in Your Work and in Your Life



Johnson, Spencer , Blanchard, Kenneth 지음 | Vermillion | 2008년 03월 15일

이 책이 속한 분야  
경제/경영 > 자기계발

Cheese is a metaphor for what you want in life - be it a good job, a loving relationship, money or a possession. And the maze is where you look for what you want - your organization, family or community. This book shows how to anticipate change, adapt quickly, enjoy change, and be ready for more.

### 원서번역서 내용 엿보기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은? 시카고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생들. 그들 중에 한명이 스니프와 스키키라는 작은 생쥐를 주인공으로 한 우화를 들려준다.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는 생쥐들을 통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생쥐들이 찾는 치즈는 좋은 직업, 인간관계, 재물, 건강, 평화와 같은 것을 상징한다.

## 1. 저자소개 : 스펜서 존슨 (Spencer Johnson, ジョンソン, スペンサー)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 글로벌 밀리언셀러 작가이다. 그의 대표작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비롯해 『선택』 『멘토』 등은 수십 개국에서 약 4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한 걸 같이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깨우치게 돕는 내용들이다.

그는 1977년 이전부터 그의 자녀에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3단계 대화법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을 자녀들에게 적용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많은 부모들의 사례를 수년 간 수집하여 실질적인 사례와 훌륭한 제안들을 정리해 이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다른 '1분 시리즈' 도서와 함께 뉴욕타임즈 최고의 베스트셀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영국 왕립외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네소타주 메이오클리닉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세계 정상급의 컨설팅 기업인 '스펜서존슨파트너스(Spencer Johnson Partners)'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개인의 발달을 도왔다. 2017년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Ken Blanchard, Chief Spiritual Officer and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Blanchard Companies, Inc., is the author of a dozen bestselling books, including the blockbuster international bestseller "The One Minute Manager" and the giant business bestsellers "Raving Fans" and "Gung Ho!." His books have combined sales of more than 12 million copies in more than twenty-five languages. He is married with two children and lives in San Diego, California.

## 2. 목차

### Contents

Parts of All of Us ..... 12

The Story Behind The Story

By Kenneth Blanchard, ph.D. .... 13

A Gathering: Chicago ..... 21

Who Moved My Cheese?: The Story ..... 25

Four Characters

Finding Cheese

No Cheese!

The Mice: Sniff & Scurry

The Littlepeople: Hem & Haw

Meanwhile, Back In the Maze

Getting Beyond Fear

Enjoying The Adventure

Moving With The Cheese  
The Handwriting On The Wall  
Tasting New Cheese  
Enjoying Change!

A Discussion: Later That Same Day ..... 77

New Cheese! ..... 95

Share It With Others ..... 96

### 3. 출판사 리뷰

With over 2.5 million copies sold worldwide, this is a must-have book for all ages

Veränderung als Chance Ein Berufswechsel, eine Scheidung oder ein Umzug: Mit Unbeholfenheit reagieren viele, wenn sich plötzlich Veränderungen im Leben einstellen. Wie man ihnen mutig und erfolgreich begegnet, erzählt die Parabel von zwei Mäusen und einem Zwergenpaar, die in einem Labyrinth leben, als eines Tages das Wichtigste in ihrem Leben, der Käse verschwindet. Ein Wettlauf um Selbstüberwindung, Hoffnung und Erfolg beginnt ... Nr. 1 auf der Bestsellerliste der New York Times, des Wallstreet Journals und der Business Week.

With over 2.5 million copies sold worldwide, *Who Moved My Cheese?* is a simple parable that reveals profound truths. It is the amusing and enlightening story of four characters who live in a maze and look for cheese to nourish them and make them happy. Cheese is a metaphor for what you want to have in life, for example a good job, a loving relationship, money or possessions, health or spiritual peace of mind. The maze is where you look for what you want, perhaps the organisation you work in, or the family or community you live in. The problem is that the cheese keeps moving. In the story, the characters are faced with unexpected change in their search for the cheese. One of them eventually deals with change successfully and writes what he has learned on the maze walls for you to discover. You'll learn how to anticipate, adapt to and enjoy change and be ready to change quickly whenever you need to. Discover the secret of the writing on the wall for yourself and enjoy less stress and more success in your work and life. Written for all ages, this story takes less than an hour to read, but its unique insights will last a lifetime. Spencer Johnson, MD,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authors of inspirational writing. He has written many New York Times bestsellers, including the worldwide phenomenon *Who Moved My Cheese?* and, with Kenneth Blanchard, *The One Minute Manager*. His works have become cultural touchstones and are available in 40 languages.

-----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삶을 바꾸어 놓은 글로벌 밀리언셀러《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원서 Paperback.

변화의 순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전해주는 이 우화의 내용은 생각보다는 단순하다. 스니퍼, 스커리라는 작은 생쥐와 햄과 허라는 꼬마 인간이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전부다. 미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딘가의 창고 속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치즈. 이야기는 결국, 무한의 행복을 보장할 것 같았던 창고의 치즈가 어느 날 사라지면 서 이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냄새를 잘 맡는 스니퍼, 민첩하고 재빠른 행동의 스커리, 갑갑한 비관과 원망으로 과거에 발목잡힌 햄, 그리고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드디어 새로운 치즈를 찾아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주인공 허. 이들을 통해 안주의 유혹과 실패의 두려움에 대처해가는, 변화의 현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고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천히 마음으로 읽어 가다보면 정곡을 찌르는 깊은 깨우침을 만날 수 있다. 가볍게 읽으면 한없이 가볍게 읽히지만 삶의 무게만큼이나 소중하게 읽어가면 또 그만큼의 깊고 날카로운 반성과 교훈을 들려준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가? 혹시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일한 회피와 '어떻게든 돼 버려라'는 비관의 자세로 변화에 대처하지는 않았는가? 이 책은 이 짧은 우화 속에서 그렇게 수없이 읽는 이에게 질문하고 질책한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으로 그리면 치즈가 더 가까워진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치즈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면 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변화에 맞닥뜨리면서 '허'가 미로의 벽에 남기기 시작하는 글귀들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마음의 가르침으로 와 닿는다. 저자가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글귀들일 것이다. 다만 부딪혀 튕겨 나오지 않고 소복이 가슴에 배여들도록 하기 위해 우화의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 4. 책속으로

이미 국내 번역서로도 상당한 인기를 얻은『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원서. 가볍고 쉬운 일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 손에 꼭 맞는 사이즈의 Paperback으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주제는 인생에 있어서의 변화가 어떤 성격인가의 문제로서, 변화라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평이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Who Moved My Cheese? is an amusing and enlightening story of four characters who live in a maze and look for cheese to nourish them and make them happy. Cheese is a metaphor for what you want to have in life - whether it is a good job, a loving relationship, money or a possession, health or spiritual peace of mind. And the maze is where you look for what you want - the organisation you work in, or the family or

community you live in.

This profound book from bestselling author, Spencer Johnson, will show you how to anticipate change, adapt to change quickly, enjoy change and be ready to change quickly again and again. Discover the secret for yourself and learn how to deal with change, so that you suffer from less stress and enjoy more success in your work and in life.

Written for all ages, this story takes less than an hour to read, but its unique insights can last for a lifetime.

-----

They were unprepared for what they found.

'What! No cheese?' Hem yelled. He continued yelling, 'No Cheese? No Cheese?' as though if he shouted loud enough someone would pick it back.

'Who moved my Cheese?' he hollered.

Finally, he put his hands on his hips, his face turned red, and he screamed at the top of his voice,

'It's not fair!'

--- p.33

## 5. 리뷰 자료

### ■ 자료1

2마리의 쥐 Sniff 와 Scurry 그리고 2명의 littlepeople 인 Hem 과 Haw. 이들이 미로 안에서 살면서 치즈를 찾는 내용이다.

Sniff 와 Scurry 는 단순한다. 고민하지도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보는 그대로 느끼고 바로 실천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Hem 과 Haw 는 본인들이 쥐보다 똑똑하다는 자부심아래 사람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로인해 쉽게 결정도 내리지 못한다.

이 책속에서 치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걸 의미한다.

Sniff 와 Scurry 는 치즈스테이션 C 에 치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걸 확인한 후 바로 새로운 치즈를 찾으러 떠난다.

하지만 Hem 과 Haw는 치즈가 왜 없어진건지, 어떻게 이런일이 본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건지... 억울해 하고 고민하고 의논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곤 매일 아침 이곳 치즈스테이션에 다시 와서 치즈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들은 새로운 치즈를 찾아나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새로운 치즈를 못찾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고민에 또 빠질뿐이다.  
하지만 순간 Haw는 본인의 멍청함에 웃고 만다.  
이곳 치즈 스테이션C 에는 더 이상의 치즈가 존재 하지 않다는걸 깨달은 것이다.  
그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미로속으로 다시 치즈를 찾으러 나선것이다.  
하지만 Hem 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새로운걸 찾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만일 치즈를 못찾으면 어떻게 되는것인가..라는 고민때문에..  
미련을 못버리고 새로운걸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부터 앞서는 것이다.  
난 이 책안의 주인공 중 에서 Hem 과 거의 비슷한거 같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난 후 Carlos 가 한 말이 제일 인상깊게 남는다.

I wasn't Sniff -- I didn't sniff out the situation. And I certainly wasn't Scurry -- I didn't go into action immediately. I was more like Hem, who wanted to stay in familiar territory.

우리모두는 삶의 목표가 다 있다.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하지만 어떤이들은 달려가기만 한다. 주위의 변화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  
예전의 나처럼 말이다.  
이만큼 했는데 다시 새로운걸 도전하기엔 늦지 않았나.. 라는 고민에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또 달려간다.

이건 현명한 방법이 아닌거 같다.  
과감하게 버릴건 버리고 받아들일건 받아들이는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동안 제일 후회없이 살 수 있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제일 먼저 이 책을 읽어 보라고 말하고 싶다.

## ■자료2

This book is short and sweet. Life's always moving on and keeps changing. You, however, think it isn't. I don't think it's a real-life based story but it will help you somehow. We've got "Sniff, Scurry, Hem and Haw" in ourselves. You don't have to be Haw always. Keeping in mind the four characters in our minds will help you through the changes that you are facing with. Read and use well.

[인상깊은구절]

The hand writing on the wall Change happens, They keep moving the cheese Anticipate change, Get ready for the cheese to move Monitor change, smell the cheese often so you know when it is getting old Adapt to change quickly, the quicker you let go of old cheese, the sooner you can enjoy new cheese Change, move with the cheese Enjoy change, savor the adventure and enjoy the taste of new cheese Be ready to change quickly and enjoy it again and again, they keep moving the cheese-74 Old beliefs do not lead you to new cheese. -64 He began to imagine all kinds of frightening things that could happen to him. He was scaring himself to death - 55

### ■ 자료3

참으로 얇은 이 책이 뭐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하고 내심 궁금해 하던 책이다. 한글로 진작에 읽고 싶었으나, 영어공부도 할겸 원서를 사 놓고 기회가 있으면 읽으려고 했었는데, 최근에서야 그 뜻을 이루었다. 활자도 크고 내용도 평이해서 초보자의 영어공부용 원서로는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내용도 무시못할 교훈을 던져준다. 저자는 4명(2명은 사람, 2명은 쥐)의 의인화된 인물을 통해 그 들이 없어진 치즈를 찾아가는 방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치즈'란 모든 사람들의 일, 직업, 살아온 환경, 희망, 사랑등 즉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등장인물 중 쥐에 해당하는 'Scurry'와 'Sniff'는 변화된 환경 즉 그들에게 소중한 치즈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면서도 신속한 반응으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내어 또 다시 그것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등장인물 중 사람에게 해당하는 'Haw'와 'Hem'은 전자의 그룹과는 다르게 치즈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 무의미한 분석과 신세한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 중 'Haw'는 뒤 늦게나마 치즈가 없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존 반응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그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다니는 중간 중간에 자신의 통찰을 메모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세지들이다. 말하자면 저자는 변화된 상황을 항상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신속히 반응하여, 결국 두려움없이 변화를 즐기라는 단순하지만 의미깊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등장인물 중 한사람을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Hem'이라고 하는,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여 새로운 치즈를 취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즉 저자는 그를 통해 이 책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했던 것 같다.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으로 현재의 몰락을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또 다른 성취를 얻을 것인가?' 교훈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걱정할 것 없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놓고 벌이는 토론을 대화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구체화된 교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 자료4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책 소개란의 독자리뷰 조회수를 보고 한 번쯤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로 의견이 갈리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던 데다가, 길지도 않다니 공부할

검 원서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했다. 그리고 책을 받아든 순간 황당함이란.. 활자크기가 여느 페이퍼 북의 3배 정도 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 책에 대한 찬사와 미사 여구를 실은 페이지들과 차례, 서문을 포함해서 채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 분량에 기가 찼다. 비교적 책에 드는 비용은 아끼지 않는 편이지만, 솔직히 들인 거금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린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곧 책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읽기 시작했다. 세상에.. 원서 한권을 3시간만에 독파하기는 처음이었다. 하긴 한글판을 어떤사람이 30분만에 다 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잡았어야 했는데.. 책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못해서인지, 그다지 내용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다. 나는 어떤 책에서든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를 갖고 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는 태도의 필요성은, 다른 책에서 얻는 또 다른 교훈 정도의 비중이었을 뿐이다.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었다. 굳이 밝히자면, 개인적으로 크나큰 공감을 느꼈던 책은 느낌의 미학을 강조했던 책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가슴이 떨리는 감동을 맛보았다지만,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정말 차이가 크다. 서양사람들은 거의 평탄하고 안정된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이 적다보니 이 책에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 감명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 없다고 한다. 변화에 대해 뛰어난 감각을 가졌음에도 아직도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IMF같은 외부적 변화에 내부적으로 적응이 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만큼 마음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참 씩씩한 마음이 든다. 이 책의 내용이 나쁘다거나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름대로 교훈적이고 가치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만 그 책의 가치에 비해서 과찬들이 너무 인플레이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인상깊은구절]

They were unprepared for what they found. "What! No cheese?" Hem yelled. He continued yelling, "No Cheese? No Cheese?" as though if he shouted loud enough someone would pick it back. "Who moved my Cheese?" he hollered. Finally, he put his hands on his hips, his face turned red, and he screamed at the top of his voice, "It's not fair!"

## ■자료5

책의 주제가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마라'는 정도인 것만 어렵듯이 알고 있던 그 때, 이 책은 나와 동료들에게 무능력자를 도태시키려는 목적의 구조 조정을 정당화 하기 위한 사장의 사악한 도구로 각인되었고, 독서 원인 제공자(?)의 사라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잊혀졌다. 그 이후로도 너무 빠른 성공 처세서와 베스트셀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매번 뺨치를 놓던 차,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영어 공부 삼아 가볍게 읽어 볼까 하는 맘으로 이제서야 잘나가는 이 책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책과도 시절운이 닿아야 한다는 말의 뜻을 다시 한 번 깨치면서, 독자마다 다른 의미의 다른 깊이로 읽겠지만, 과를 최근에 읽은 후라 그런지, 내겐 또 다른 버전의 이었다. 두 명의



생쥐와 두 명의 난장자들이 변화에 대처하는 각기 다른 자아의 상징이란 것도,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치즈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의미한다는 친절한 설명도 구지 나쁘진 않았지만, 내 눈에 더 확 들어와 박히는 것들은 역시, Haw가 cheese station c를 나와 미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행하는 방법이다. 즉 미로찾기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과 치즈의 종류와 모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맛을 음미하는 자신의 모습등을 visualization하는 장면은 약간의 충격이었다. '아니 뭐야 이거,시크릿이랑 똑같잖아!' 또한 과거의 안락했던 cheese station c는 잊어 버리고,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앞길을 선택하는 Haw의 모습 또한, 에서 조엘 오스틴이 역설했던 부분이지 않은가. 완전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치즈조차 조금씩 상하고 변하기 마련이라는 부분에선, 인생무상,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도 했다. 역시 진리란 다 통하는 건가 보다.

치즈를 단순히 시류의 급격한 변화로만 본다면야, 치즈가 움직이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일종의 좃대없는 시류편승 혹은 한 발 앞서 치즈를 옮겨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치즈를 인생의 궁극 목표인 행복이라고 본다면, 결국 행복을 쫓아, 그때 그때 자신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 대로 변화하며 현재에 충실하란 뜻이 아닐까 싶다.

역시 명성답게 짧지만 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좋은 책이었다. 책은 변한 게 없었으나 내 맘이 변했기에 좋은 책이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면에선, 결국 이 책이 나에게겐 일종의 new cheese가 되버린 셈이다. 흠. 맛이 아주 좋구만..

#### **\*책 접기**

"He was beginning to realize the difference btn activity and productivity."

"He was letting go and trusting what lay ahead for him, even though he did not know exactly what it was."

"You did not need to overcomplicate matters or confuse yourself with fearful beliefs."

#### **■자료6**

이책에서는 '변화'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변화란 .  
삶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제껏 간직했던,  
이제껏 유지했던,

이제껏 해왔던 것을 한번에 바꾼다는것,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올 수 있다.  
행운을 불러올 수 도 있고, 불행을 불러올 수 도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  
변화를 결심할때의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 자신이 있다면  
변화를 결심하여  
불행을 일으키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한다.

#### ■자료7

After reading this book, I decided to send this book to one of my students. She is now about to start another life in studying English. English seems to be her anticipation and preparation for the "new cheese". I want to let her know how she is doing very well for the coming "new cheese." And also I found myself already being "Hem"- that terrible "Hem". I was so surprised that I couldn't wait to talk about "Hem" and "new cheeses" with my close friend. She was also sympathetic and she and I want to change. And to be ready for the change we promised ourselves to be alert to the "old cheese." That is where we should start to become "Haw".